

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8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현안질의
3. 현안질의 관련 증인 고발의 건(추가)
4.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5.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
2. 현안질의 2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위원 외 3인 서면동의) 13
3. 현안질의 관련 증인 고발의 건 13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
4.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 15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
5.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 15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질의

(10시07분)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12월 19일,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 주요 공직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22명의 증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다시 잡은 일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엄중한 현 상황에서 각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 현황과 같이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은 국회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그 책임에 대하여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오늘 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출석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를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항명으로 규정합니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한 이들이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안하무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엄중 경고와 함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12·3 내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입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계엄 해제 직후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해서 내란 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언행입니다.

오늘 사실 운영위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강원권에 있는 북과공작특수부대, HID 부대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방문을 했었는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때 원래는 대통령 윤석열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취소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간 겁니다. HID 가서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를 했습니다. 김태호 1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3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 부대는 비밀부대라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육군 대장까지 한 보병이나 포병, 전투병과 장군들도 이런 데는 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 김태호 1차장이 왜 거기에 가서 훈련 사항을 자세히 체크했는지 또 대통령은 왜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왜 갔는지 정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그때 있었지요.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여러 반국가세력으로 지칭되는 언론인, 정치인들을 B1 문서고, 그러니까 전쟁지도본부로 쫓던 B1 문서고에 감금하려고 했다는 것이 증언이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부로 쓰는 시설, 거기다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거대한 bunker입니다. 거기다 12월 3일 날 아침부터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하고 통신 점검을 하고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한 정황이 아주 믿을 만한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왜 충청권에 있는 실제 전쟁지도본부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날 낮부터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습니까?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부로 거기를 쓰려고 한 것인지, B1 문서고는 반국가세력들을 감금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충청권 이남에 있는 실제 포고령 위반한 인원들, 예를 들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라든가 또는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여러 언론인, 정치인들을 거기에 다 잡아 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해 주기 바랍니다.

12·3 내란 이후에 아직도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스스로 저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몸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안 오는 것은 본인들의 죄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에 나와 국민의 물음에 답변해야 합니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책임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현안질의 발언하고요.

그다음에 전용기·정진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칼바람보다 더 썩늘한 민심이 용산을 에워싸고 있지만 내란 사태 관련한 증인들은 죄다 줄행랑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사병집단인 박종준 경호처장, 탄 세상 일인 양 당일 개 산책을 시키는 김건희로 보이는 자까지 모두 한몸임을 확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에도 김건희의 총애를 받는 한남동 심상시가 있고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이 그 인물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인 시절에 입틀막 사건으로

영전한 인물입니다.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일 케이블타이와 실탄까지 준비시킨 내전 획책의 주역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기조실장 시절에 코바나컨텐츠가 이사할 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시켜 놓고도 사적 행위가 아니라고 비호한 김건희 총성 수족입니다. 또 김성훈 차장은 지난해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관저에는 사우나, 골프장 등 어떤 호화시설도 없고 명태균이 보안손님으로 온 적도, 본 적도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심기 경호에만 매달려 온 인물입니다.

지난 1월 3일 이들 모두 관저에 틀어박혀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패막이만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낱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자들이 용산에 숨어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정말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경호를 위해서 24시간 대기하고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출석 못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렇듯 24시간 밀착 수행하고 있는 경호처가 윤석열의 계엄 음모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한남동 십상시들에게 묻겠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법명령을 내려서 공직자들이 범죄자가 되게 하고 국격과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60년간 축적된 경호 역량입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국민 앞에서지를 못하는 겁니까?

어제 법원은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경호처에 경고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범법자가 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발을 통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가족부장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쓴 손 편지로 내전에 달하는 윤석열 체포·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스통으로 방어진을 쌓자, 무기를 준비하라는 등 극우 유투버들의 극단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세계 외신들은 유혈사태와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보도를 앞다투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침해 행위가 우려되는 현장에 나가서 감시·예방하는 제도로서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 지시로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계엄 이후 지금까지 집회 현장에 한번도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창호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내내 침묵하다가 여론의 물매를 맞자 아무 알맹이가 없는 늑장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내란 사태와 내전 준동이 인권위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석하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고요. 안창호 위원장은 윤석열 내전 획책에 대해서 신속한 입장을 내고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고요. 지금 정진욱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이소

영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그다음에 신장식 위원님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한남동에 있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체포영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남동에 나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습니까?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의무를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그 문제를 일으킨 내란수괴 피의자 체포영장까지 방해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내란 혐의에 가담을 해도 되느냐?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란 동조와 옹호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그리고 국회에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여서 이분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탄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분들께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야당의 단독 의결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임위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겁니다. 이것을 야당의 단독 의결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주권권리와 의무를 내팽개친 여당 위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본인의 의무를 다하셔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여러,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경호처장 그리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내란 동조범임을 실토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말이 다르지만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해명들은 거짓 투성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셔서 본인의 해명을 다시 하셔야 된 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통령도 제3의 장소로 도피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최대 수준의 대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한 그 간부들 반드시 고발을 하고 이후에도 중인 의결을 해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서 신문을 해야 된 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호처 간부들은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경호처를 해체시킨 최악의 지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방해를 직원들께 지시하는 행동 당장 멈춰 주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영장 청구에 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당의 단독 의결이 아니지요. 국힘당 단독 불참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주시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현재 국정의 최고책임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에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최 대행이 나올 것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은 최상목 대행에게 지시문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최상목 대행은 쪽지라고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는데, 정확히 지시문입니다. 그 지시문을 보지 않고 차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문서로 일해 온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이 준 문서를 보지 않고 부하에게 주었다,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관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문서로 일하는 관료들은 본능적으로 상사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시문에는 계엄 예비비와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즉시 경제 관련 F4, 주요 인물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위해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계엄에 뒷받침을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내란의 공범인 최상목 대행이 지금 본인이 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묵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불상사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조금 전 기사를 보니까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광을 증대시키고 또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목적인데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여행객들이 많이 한국을 찾게 하려면 결국은 계엄 사태가 종결되고, 즉 내란 사태가 종식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계엄 하는 한국이 무서워서 여행을 취소한다 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광업체들도 현재의 상황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게 75%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7일을 아무리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설 전에 내란수괴 그리고 내란 사태가 완벽하게 종식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휴가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무서운 한국에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강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왔어야 됐던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경호처 어느 누구도 지금 오지 않았는데, 저는 공수처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시가 급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장은 경호원들에 대한 일말의, 아주 조금이라도 애정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체포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경호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경호처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윤석열을 보호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처장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는지 정말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체포에 협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의 증인 출석 현황 자료라고 해서 봐 주신 걸 봤는데 참 가관입니다. 비서실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돼서 못 온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설명하시라 이겁니다. 경호권력을 남용하게 만들어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왜 못 하십니까?

정책실장, 경제수석비서관은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국민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저출생수석비서관인 유혜미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못 온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못 온다, 김건희 씨의 반려동물 사료 대주는 결제 해야 돼서 안 오는 겁니까?

체포대상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수사에 불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기간 동안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윤재순 또한 내란의 공범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한 나라의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물리력으로 막고 있습니다.

정치 지망생 출신인 경호처장은 주제넘게 영장의 적법성을 운운하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은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의 보신만 추구하고 있는 비겁자 윤석열입니다.

법치주의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해결을 개인적 판단이나 사적인 힘에 의존하지 말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두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우리 공동체 합의가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 자리에 앉아 있는 윤석열은 자신의 손으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 왔던 금기를 깨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은 응하지 않아도 된다, 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깔아뭉개도 된다, 권력자는 사법절차의 예외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번에 방치한다면 앞으로 힘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법치에 맞설 것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그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모든 자들을 법에 따라 단호히 엄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비서실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고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누구도 그날의 경위에 대해 한마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국회운영위가 대통령실 간부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계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는데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땡땡거리던 대통령의 참모들이라면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께 설명할 책무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합니까? 최소한의 책무도 이행할 의사가 없습니까? 왜 공직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허공에 대고 물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이 정말로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실 간부들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는 간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대통령 경호를 24시간 해야 한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불출석 사유입니다.

지난 1월 5일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경호처장이 하는 대국민 담화라는 것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유례없는 이상행동, 비정상 행동입니다.

담화문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영장이라는 실효성을 가진 실물로 구체화된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법치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자백했고 천명한 겁니다. 경호처장이 언제부터, 사법부가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의 적합성 판단하는 옥상옥 상위기구가 우리나라 경호처입니까?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보고 터무니없다고 또 부정까지 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반대 의사를 입틀막 하겠다라고 공적 담화를 통해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아주 우습게, 하찮게 보는 경호처장입니다.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의 출석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장 및 간부들이 대한민국 경호처의 역사와 역할을 지금 참칭하고 있고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은 어느 국가처럼 대통령경호처 해체하고 오히려 전면 개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당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의 의무복무 군인들까지 동원했습니다. 법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도 없고 도리도 없습니다.

미국의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당선인이—현재 당선인이지요—전직 대통령 신분이던 시절에, 트럼프가 구금 가능성이 높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비밀경호국 요원, 우리로 말하자면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구치소에 동행해서 경호임무를 다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고민해야 될 시나리오는 영장 집행, 합법적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을 꾀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할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계획하십시오.

지금 물리력, 총기까지 사용해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법의 준엄함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혐의가 매우 짙지요. 범의 준엄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란 현행범이자 내란수괴 피의자를 받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을 수호할 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에 대한 존중, 순응을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보여 줘야 합니다.

국회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계속 내란수괴 경호 핑계로 불출석하면서 24시간 편의점 경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법치에 대한 모욕이며 거부입니다. 이에 위원장께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불출석에 대한 고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무도, 박종준 경호처장의 무법, 공수처의 무능,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무력화되었고 한남동 내란 범죄자들의 소굴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즉 최소 수백 명의 무장한 정예 경호원들을 거느린 국가 무력기관 중 군부에 준하는 경호처가 흑화되어서 헌법질서에서 이탈하고 결사항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통령실이 이러한 한남동 내란 범죄자 소굴에서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면서 공권력에 불복하는 이 상황을 핑계 삼아서 국회의 출석요구조차 응하지 않는다면 이들 또한 내란 공범임이 자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남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2차 내란이고 진압 대상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라 엄정한 집행자가 있었다면 한남동 일대에 계엄을 선포하고 군이 투입돼서 진압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따라서 공수처, 경찰, 모든 전력을 쏟아서 즉시 내란 범죄자 소굴에 진입하여 제2차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란 범죄자 소굴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거기를 찾아가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있으면 뭔가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당신들은 국민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지금 반성하고 투항하여 내란 범죄자들을 진압하는데 협조한다면 최소한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으나 마지막까지 저항한다면 국민들과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공권력에 의해서 진압되고 섬멸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경고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즉시 내란 범죄자 소굴에서 나오십시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정진석, 신원식, 박종준, 이분들 먼저 나오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출석해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역사의 기록에 꼭 남겨야겠기에 네 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국회운영위를 함께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 권영진 위원, 김승수 위원, 박수민 위원, 이 넷은 한남동 관저로 찾아가 사법부의 정당하게 발행·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하겠다고 나가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가 있는, 나갔던 위원들입니다. 이 네 분의 국회운영위원회 구성원을 과연 운영위원회의 같은 일원으로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심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이라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8년 전에 박근혜를 그나마 탄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8년 전에 본인들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반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108석은커녕 국민의힘이란 이름 자체도 쓸 수 없고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운영위를 함께하시는 강명구, 권영진, 김승수, 박수민, 네 분의 위원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께 강력하게 충언드립니다. 국민의힘을 살리고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려면 지금 즉시 올바른 판단을 다시 내리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도부는 절대 한남동 관저를 가지 않겠다. 알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한남동에 달려간 45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와서 식사라도 하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몇하시면, 그렇게 지금의 상황이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사법부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거라면 차라리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십시오. 밖에서 대통령 위하는 척하면서 그런 행태 보이지 마시고, 쇼하지 마시고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서 아예 거기에 같이 계십시오. 내란의 공범으로서 그 운명을 같이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으로서 지금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어야 될 것도 많고 질책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오랏줄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 의견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노종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윤석열과 일부 국힘 인사들의 정말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의 60년 절친이라고 하는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수괴가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하면서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관저를 찾아온 윤상현 의원을 만나서 좌파 사법 카르텔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집권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윤석열은 술한 카르텔을 언급을 했습니다. 노조 카르텔 또 시민단체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을 했고 야당은 좌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교육계까지도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사법부마저도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만들어 내면서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인식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서 극우 유튜브 카르텔에 휩싸여 있는 윤석열 본인의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인식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윤석열을 지칭해서 ‘고립된 약자다. 말만 하면 난도질 당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니지요. 고립된 약자가 아니라 아주 고약한 악마입니다. 말만 하면 난도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염장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잘못된 인식을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극우 유튜브 카르텔에 휩싸여 있는 그들의 인식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체포영장에 임하는 것만이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김건희 라인의 어떤 이익 카르텔로 전락한 대통령경호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보면 경호처 시설부장인 정 모 씨가 약 1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정 모 씨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한 개인 비리인 것처럼 했고 검찰도 감사보고서 발표 직후에 정 모 씨를 구속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경호처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인맥 구조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5억을 횡령한 시설부장 정 모 씨 배후에는 임성근 구명 로비에 등장하는 경호처 전 간부 송호종 씨가 있습니다. 정 모 씨하고 송호종 씨는 지역 절친한 동향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호종은 도이치모터스에 등장하는, 김건희 라인으로 등장하는 이종호 씨와 또 해병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런데 경호처의 김신 가족부장이 지금 핵심적인 측근으로 대통령 부부를 경호하고 있는데 이 15억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정 모 씨와 김신 가족부장은 또 같은 지역 절친한 선후배, 동향이고 해병대 2기수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전 간부인 송호종 씨 또 김신 가족부장, 구속된 시설부장 정 모 씨는 김건희 라인으로 엮여 있는 카르텔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 모 시설부장의 비리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이 같은 김건희 개인적 연줄에 의한, 김건희 주변의 경호인력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모럴해저드의 산물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김건희의 사실상의 묵인, 방조 아래 송호종·이종호 라인인 김신 부장, 정 모 부장 또 다른 정 모 총무부장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일부 경호처 간부들이 해병대 및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연줄로 엮히고설킨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총체적 비리 커넥션의 일부일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이런 횡령 같은 비리와 거리가 멀었던 대통령경호처를 범죄와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린 주범은 김건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내란죄를 덮기 위해 멀쩡했던 대통령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을 불법적인 사병집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적 권력을 이용해 21그램 등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멀쩡했던 대통령경호처를 모럴해저드에 빠뜨리고 잡범 수준의 범죄집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통령경호처 평직원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부장급 이상 간부들은 이미 공조본에 의해 입건이 되었고 그 지위로 인해서 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의 명예는 지켜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떳떳하게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책무가 지금 이 순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깨에 있습니다.

경호처 평직원인 경호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 역할을 철저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경호처라는 국가 주요 공공기관은 국민들에 의해 공중분해되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 온 경호처의 역사입니까? 어떻게 쌓아 온 경호처의 긍지와 자부심입니까? 소수의 내란 잔당과 백화점 범죄 혐의자에게 경호처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경호처 평직원과 경호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없고 대신 관저로 달려갔던 운영위 소속 국힘 위원들, 제가 지역구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구 위원은 경북 구미시읍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권영진 위원, 대구 달서구병입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읍입니다.

얼마 전까지 운영위원이었던 네 분의 국힘 국회의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충남 홍성군·예산군입니다.

김정재 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읍입니다.

강민국 의원, 경남 진주시읍입니다.

임이자 의원, 경북 상주시·문경시읍입니다.

국힘 운영위가 집단적인 내란 진압 방해세력의 전위에 서 있다, 주력군이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행태가 집단 광기 말고 뭘로 해석이 됩니까?

지도부는 거리를 두겠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들이 관저로 몰려간 날 관저로 몰려간 이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로 몰려가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언행은 내란을 동조하는 것이라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놓고 이 탄핵 사유를 내란죄로 심판할 것인지 위헌으로 심판할 것인지 변론준비기일에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란죄를 뺐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탄핵 의결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그래서 범죄 유무죄,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다.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게 민

주당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이지요. 국회의 입장이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문장 그대로를 8년 전에 권성동 당시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국힘 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8년 전의 권성동부터 붙잡아서 족친 다음에 입을 열어도 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모경중 위원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정할 내용?

모경중 위원님 말씀 주세요.

○모경중 위원 아까 발언 내용 중에 제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의 성함을 잘못 언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수민 위원은 관저로 달려간 위원이 아니십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증인들이 불출석한 이유로 부득이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위원 외 3인 서면동의)

(10시54분)

○위원장 박찬대 그리고 박성준 위원으로부터 현안질의 관련 증인 고발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복수의 찬성자가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등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으로 현안질의 관련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안질의 관련 증인 고발의 건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현안질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22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고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한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에 2024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특히 12월 14일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사용내역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2024년 전체 집행액만 제출했습니다. 사용내역도 없고 14일 이후 사용 여부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출 못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14일 이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누누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24년 1월 법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부터 정보공개 결정까지 법원 판결 무시하고 거부하는 게 대통령실의 전매특허처럼 돼 있는대요.

위원장님, 다음 회의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위원회 의결로 해 주시고 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써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윤건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내란 사건이 지금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경호처가 윤석열 씨의 사병이 되어서 막고 있는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운영위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긴 합니다만 경호처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개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이나 안보실과는 별건으로 해서 경호처만, 예컨대 본 부장은 당연히 참석 대상이고요 부장급까지를 총괄하는, 경호처만을 대상으로 한 국회운영위를 열어서, 공권력과 공권력이 싸우고 있는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화해서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국회 관례로만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어떻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지금 바로 오늘 올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신장식 위원님 자료요청을 의결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경호처만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증인 채택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의 처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서류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

(11시42분)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간사와 협의하여 1월 17일 10시에 대통령경호처 주요 공직자를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증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국회법 제71조 및 7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으로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의 2024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의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사용내역이며 제출기한은 2025년 1월 16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안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12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 요지	출석요구일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12·3 비상계엄 선포 등 현안	2025. 1. 17.(금) 10:00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안경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노승룡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장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감사관		
김 0	대통령경호처 부장		
장00	대통령경호처 부장		
김00	대통령경호처 부장		
김00	대통령경호처 부장		

○출석 위원(18인)

강유정 고민정 김병주 김성희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박찬대 서미화 신장식
양문석 윤건영 윤종균 이소영 전용기 정진욱 천하람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회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회관 주성훈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강승규	김승수	국민의힘	2025. 1. 6.

○의안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0.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이상 2건 12월 3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2)

이상 3건 2025년 1월 2일 회부됨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2025. 1. 2. 위성곤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7214)

1월 3일 회부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8)

이상 2건 1월 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2024. 12. 31. 김예지 의원 등 47인 발의)(의안번호 2207186)

2025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9)

1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420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 7. 의장 제의)

1월 7일 회부됨

○의견서 제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

(이상 2건 2024. 12. 31. 의장 제의)